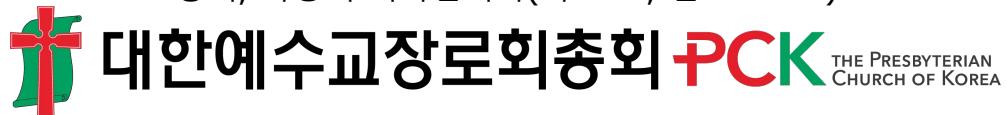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사 55:7, 앱 4:31-32)"



수 신 노회장
참 조 교육자원부장
발신부 교육자원부
제 목 2026년 총회 청소년주일 성수 및 예배자료 배포요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매년 2월 마지막 주일(2026년 2월 22일)은 총회 제정 청소년주일입니다. 청소년주일은 단지 청소년을 위한 날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음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복음으로 양육하고 동행할 사명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이번 청소년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는 오늘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뇌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음적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지노회는 전국교회가 청소년주일을 잘 지킬수 있도록 예배자료를 노회소속 교회에 전달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총회 청소년주일 예배자료(안). 끝.

총 회 장
부 장
정 김 철
A red square seal impression containing Korean characters, likely the name Kim Cheol.

실장 이명숙 총무 전호영 사무총장 최상도

시행 교육·훈련처-262 (2026.2.4.)

우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7층 (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6(내선9508) 전송 02-741-3477 / plain21@pcknet.org

/ www.pck.or.kr
/ 공개

제110회기

2월 22일

청소년주일 예배자료

사순절 첫째주일



목차

1. 총회장 목회서신 | 02
2. 청소년주일 예배 기획 의도 | 03
3. 청소년주일 예배순서(안) | 05
4. 청소년부 총회 제5차 공과소개-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 | 11
5. 청소년 입교교육 교재 소개 | 30
6. 생명문명 생명목회 순례10년(2022~2032) | 37
생명의 샘, 잔치! 온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소외와 고립을 넘어 존중과 연결의 공동체로
7.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지침 | 53
8. 교회학교중고등부전국연합회 소개 | 62



총회장 목회서신

정 훈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국 69개 노회와 3,780개 중·고등부 처소, 그리고 14만 청소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2월 23일은 제107회 총회(2022년) 결의에 따라 제정된 청소년주일입니다. 총회 통계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교단의 중·고등부 학생 수는 140,960명으로 전년 대비 6,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숫자의 감소보다 더 뼈아픈 현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는 ‘조용한 이탈’입니다. 청소년이 신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모 외에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성인 성도 5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청소년을 막연한 ‘미래’로 미뤄두지 말고, 오늘 함께 호흡하는 ‘동역자’로 환대하며 그들의 영적 안전망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제110회기 주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따라, 교회가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복음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사 55:7).

용서의 출발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며, 회개하는 자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청소년을 추궁하기보다 “언제든 돌아와도 좋다”는 안전한 자리로 맞이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정죄보다 관계적 안전을 먼저 세워 주어야 합니다.

둘째, 용서는 악한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엡 4:31).

분노와 비방을 버리는 일은 갈등을 덮는 회피가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언어와 악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청소년은 어른들의 말투와 교회 문화를 배우기에, 우리는 ‘흔내는 사람’을 넘어 감정을 신앙으로 다루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악순환을 끊는 복음의 방식을 삶으로 보일 때, 청소년은 그 안에서 새 길을 발견할 것입니다.

셋째, 용서는 상처를 넘어 “사랑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엡 4:32).

용서는 둑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용기이며, “용서받은 자가 용서한다”는 순환은 교회의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다만 불의를 덮지 않기 위해 필요한 보호와 전문적 치유를 통해 진실과 안전의 토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 위에서 청소년은 “실패해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복음의 확신 속에 자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청소년주일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고통과 고뇌를 외면하지 않고, 용서로 사랑을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서 인생의 멘토를 만나고, 상처를 넘어 다시 사랑할 용기를 배우는 기적의 역사가 전국 교회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청소년주일 예배 기획 의도

핵심진단 : 영적 단절의 위기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세대 간의 영적 단절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마 22:32)을 선포하며, 신앙이 3대에 걸쳐 유기적으로 흘러가야 함을 명령합니다. 하워드 반더웰(Howard Vanderwell)의 말처럼 다음 세대는 '미래의 교회'(Church of Future) 아니라 '지금의 교회'(Church of Now)입니다. 청소년주일 세대 통합사역은 전통적인 시스템을 존중하되, 전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성경적 본질 회복 사역입니다.

청소년주일 세대통합예배는 여러 연령층이 한 공간에 모이는 물리적 행사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세대가 평등하게 소중함을 인정받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세대통합예배는 단순히 형식을 바꾸는 예배가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흐르는 생명의 잔치이며, 온 세대가 함께 웃고 울며 하나님 앞에 한 가족으로, 한 영으로 모이는 예배입니다.

핵심가치

1. 소속감의 강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공동체 안에서 존재 자체로 존중받을 때, 교회는 영적 치유의 공간이 됩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환영받고 싶은 마음'을 충족시킵니다.

2. 위기 가정의 보완적 지원

핵가족의 한계를 넘어 '공동체적 가족' 개념을 확장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여 결핍이 있는 가정에 영적 완충 지대를 제공합니다.

3. 자원의 통합적 풍요

기성세대의 풍부한 재정·안정적 시설과 다음 세대의 신선한 비전·에너지가 결합하여 자원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돈은 있으나 에너지가 없는 교회'와 '비전은 있으나 재원이 없는 교회'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합니다.

4. 성품 형성에 영향

세대 간 갈등은 영적 성숙의 기회입니다.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조율하며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교회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성경적 공동체성을 체득합니다.

5. 영적 발달의 가속화

전 세대가 신앙의 서사와 전통을 함께 경험할 때, 아이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며 신앙을 배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순수함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합니다.

6. 말씀의 세대통합

전 교인 원-텍스트(One-Text) 시스템으로 영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온 가족이 주중 내내 동일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설교 후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하며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가정의 영적 제사장 역할을 회복합니다.

실천원칙

- 참여 중심 설계 : 통합예배를 '관람'이 아닌 '참여' 중심으로 기획합니다.
- 리더십의 헌신 : 담임목사의 확고한 철학과 기성세대의 희생적 헌신이 필수적입니다.
- 본질의 회복: 형식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전통을 존중하되 전 세대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동시에 서는 성경적 본질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결론 : 생명의 심장박동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 우리 교회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라는 말처럼 아이들의 소리는 교회의 심장박동입니다. 어른들의 양보가 아이들의 영적 편안함이 되고, 아이들의 순수함이 어른들의 영적 강인성이 될 때, 교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세대를 넘어 증거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청소년 주일 예배순서(안)¹⁾

1) 본 예배순서(안)은 2022년 개정보완하여 출판된 [2022 예배예식서]의 주일예배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주일 세대통합예배’는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참여하는 예배이므로, 다양한 연령의 예배 공동체 구성원에게 예배위원 순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구성하고 다함께 참여하는 순서로 편성한다.

01. 모임예전

▣ 일어서서

▣ 예배로부름 | 인도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3-4)

▣ 입례송 | 찬양대

▣ 기원 | 인도자

모든 시간과 세대의 주인이신 하나님,
겨울을 지나 새봄을 여시는 창조의 섭리 가운데,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청소년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대지가 봄 햇볕에 녹아 생명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듯,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듯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새창조의 역사를 이루소서.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으로 덧입혀 참 예배자로 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온 세대가 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돌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경배찬송 | 6장(목소리 높여서) | 다같이

▣ 성시교독 | 67번(잠언 3장) | 인도자와 회중

▣ 참회와 고백의 기도 | 다같이

(참회의 고백은 전체회중, 회중의 대표자에 의해 진행될 수 있다)

1. 부모와 기성세대

주님, 먼저 부모 된 저희의 죄를 자복합니다.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소유물로 여기며 내 욕심과 뜻대로 양육했음을 회개합니다. 신명기의 ‘쉐마’ 명령을 따라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의 제사장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친 말과 행동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권위적인 태도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세대 간의 벽을 높였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2. 자녀와 다음세대

주님, 저희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사랑했습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이 전해주는 신앙의 유산을 가볍게 여기며, 사랑의 권면에 순종하기보다 거역했습니다. 습관처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 사죄의 말씀 | 시편 51:17, 로마서 8:12 | 인도자

여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편 51:17)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로마서 8:12).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송 | 570장(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 다같이

▣ 공동기도 | 다같이

(회중 가운데, 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대표자가 나와 각각 공동기도를 드릴 수도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 할아버지와 손자, 부모와 자녀, 청년과 어른이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연령과 시대를 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제단을 수축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서로를 향해 보이지 않는 막힌 담을 쌓았습니다. 기성세대는 판단으로, 다음세대는 닫힌 마음으로 서로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찾으며 가정의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되어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를 위해 울어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청소년이 유예된 미래의 교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일에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온 세대가 함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평화의 인사 |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회 중: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인도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으로 화해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평화를 전합시다.

회 중: (서로 마주 보며)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02. 말씀 예전

▣ 성령조명을 위한 기도 | 인도자

“진리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소리는 잠잠케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에만 집중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관통하여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 이사야 55장 7절, 에베소서 4장 31~32절

(봉독자는 회중 가운데, 기성세대와 다음세대를 대표하는 이들이 봉독할 수 있다)

봉독자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7절과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봉독자2: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봉독자1,2: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찬송 | 찬양대

▣ 설교 |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 위임(담임)목사

2월 마지막 주일(2월 23일)은 제107회 총회(2022년)에서 결의한 청소년주일입니다. 제110회 총회 통계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전국교회 3,780개의 중·고등부 부서 안에 140,960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6,000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조용히 떠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청소년을 ‘교회의 미래’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을 온전한 교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장년 성도와의 영적인 교류의 기회조차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신앙을 지속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외에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성인 성도 5명과의 교제”라고도 말합니다.

첫째, 용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이사야 55장 7절)

이 말씀은 용서의 출발점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임을 선포합니다. 용서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어지는 제한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너그럽게 베푸시는 풍성한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청소년들에게 “왜 그랬니?”를 먼저 추궁하기보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감정과 선택을 정리하는 능력이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이 실패와 죄책감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돋는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정죄 없이 환대하는 관계적 안전이 먼저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둘째, 용서는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에베소서 4:31)

바울은 공동체 안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마음의 독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용서는 “좋은 말로 덮어 넘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는 악독과 분노, 말의 폭력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입니다. 특별히 청소년은 어른들의 말투와 가정의 분위기, 교회의 관계 문화를 그대로 배우기에, 교회가 먼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버림”은 단지 감정을 억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한 거룩한 훈련입니다. 청소년은 아직 감정 조절과 갈등 해결 능력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른들의 역할은 “혼내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청소년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분노를 다루고 관계를 회복하는 신앙적 습관입니다.

셋째,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에베소서 4:32)

용서는 단순한 인내나 감정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방식에 근거한 복음적 삶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한다”는 은혜의 흐름이야말로, 교회가 세상에 보여 주어야 할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언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용서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넘어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용기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결코 피해를 둑거나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거리 두기와 보호,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의 과정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소년주일은 청소년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향해 복음으로 책임을 다하는 날입니다. 이번 청소년주일에 우리 교회가 청소년의 고통과 고뇌를 외면하지 않고, 용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교회 안에서 발견하고, 상처를 넘어 다시 사랑할 용기를 배우며,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세대로 자라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전국 교회와 가정,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용서의 복음으로 사랑이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합심기도 | 다함께

(설교말씀을 교회의 각 상황에 비추어 기도제목을 준비한다/ 성도들과 함께 1-2분정도 통성으로 기도한다.)

1.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

(“주님, 기성세대와 다음세대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 1)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멀게 느꼈던 청소년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용기를 주소서.
- 2)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들을 향해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닌 궁휼의 마음으로 품으며 환대하게 하소서

2. 용서를 가로막는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구하는 기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관계를 회복하게 하소서”)

- 1) 분노와 원망, 말로 주었던 상처와 쌓인 오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 2) 용서와 화해를 이루시는 주님의 마음을 맑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3. 서로 용서함으로 사랑을 시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를 화해와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주소서”)

- 1) 교회를 통해 용서와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 2) 교회와 가정이 주님의 마음으로 청소년을 품으며 동행하게 하소서.

03. 파송예전

▣ 축복기도 | 다함께

1. 부모의 자녀를 위한 축복기도(장년세대가 다음세대를 위한 축복기도)

인도자 :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자녀 혹은 우리교회의 다음세대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봅시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후 공동 축복기도문을 드린다.)

인도자 : 하나님,

우리의 다음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2. 다음세대가 부모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

인도자 : 이제 다음세대가 부모님과 어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려주신 부모님과 어른들을 떠 올리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음세대가 공동 축복기도문을 준비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인도자 :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00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용서받은 자로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받은 자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삶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 축복의 노래 | 야곱의 축복(김인식 곡) | 다함께

(손을 펼치며 서로를 축복한다)

■ 봉헌 및 기도 | 인도자

■ 교회소식 | 인도자 (청소년 격려 및 선물증정)

■ 파송찬양 | 620장(여기에 모인 우리) | 다함께

■ 위탁의 말씀 | 위임(담임)목사

■ 축도 | 위임(담임)목사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 생명지기 생명의 품다

GTS

총회 제5차 교육과정 소개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People of the Gospel, Stewards of Life
From God to Story, From Story to Life*



동영상으로 시청하세요.

총회 제5차 교육과정은

GTS



역대 총회 교육과정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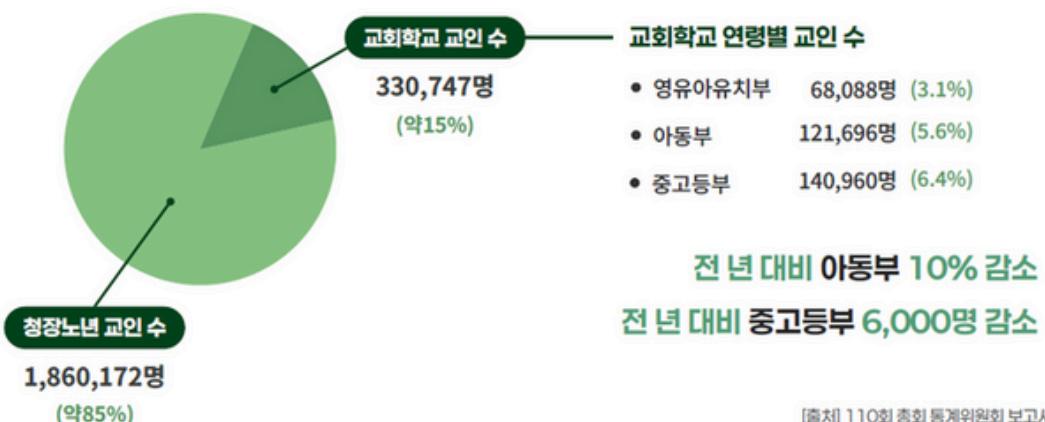




1. 연령대별 교인 수 분포



전체 교인 수 2,190,919명



2. 전국 교회 교회학교 부서수 현황



영유아유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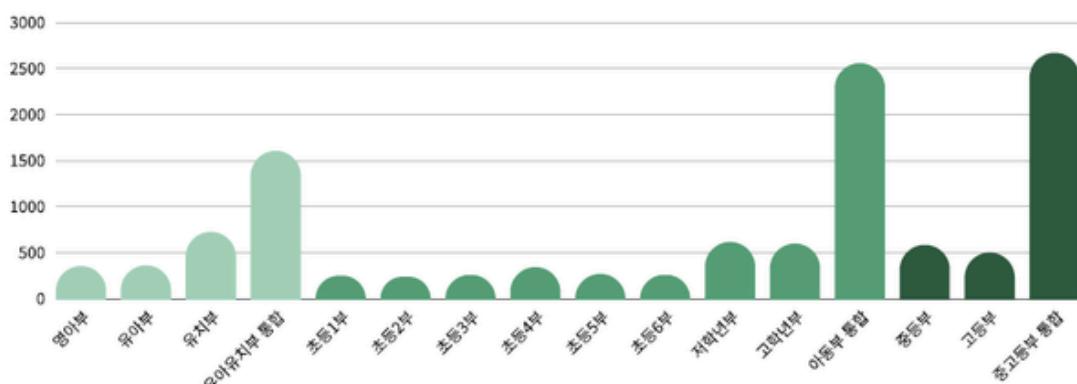
3,049개

아동부

5,394개

중고등부

3,760개



[출처] 110회 총회 통계위원회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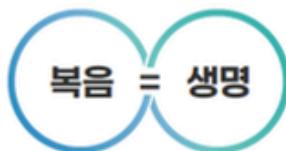


3. 제5차 교육과정 주제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

People of the Gospel, Stewards of Life



성서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개인적, 사회적, 우주적 생명의 주관자되심을 중언하고 고백하는 책

사명 이 땅에 생명의 하나님 나라 구현

하나님의 나라 개인의 영혼구원에 그치지 않고 영, 혼, 육 전체를 아우르고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나라

제5차 교육과정은

생명의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과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사랑의 교제로 우리 청소년들을 초대합니다

4. 복음의 사람이란 누구인가



복음에 뿌리내린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



복음의 감격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자



복음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자

1년차: 생명지기

2년차: 생명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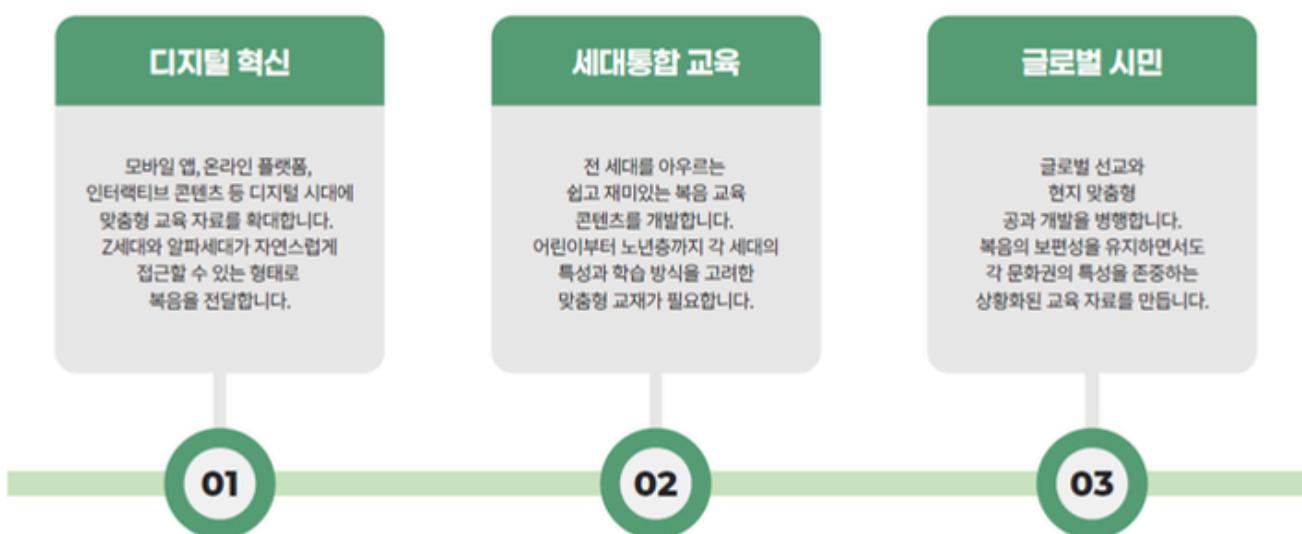
3년차: 생명누리



5. 교육과정의 7가지 목적



6. 미래를 위한 공과 개발 방향





7.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 **로고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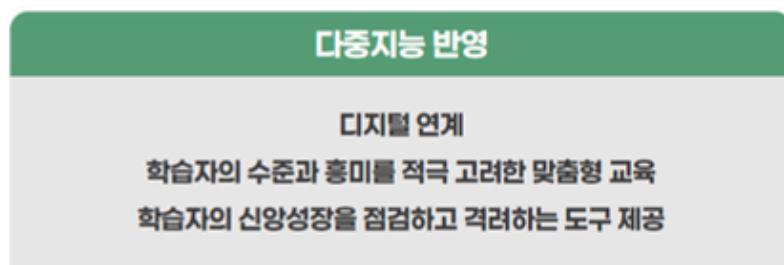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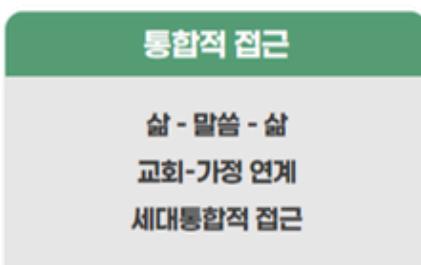
God Story = Good Story = Gospel = LIFE

하나님의 이야기 = 선한이야기 = 복음 = 삶

People of the Gospel, Stewards of Life

생명지기, 생명으로 살기, 생명의 풍성함 누리기

8. 제5차 교육과정 특징





9. 제5차 교육과정 인간상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복음의 증언자, 생명의 청지기로서 순례자적 삶을 살도록 인도한다



총회 제5차 교육과정 공과 소개 및 활용법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People of the Gospel, Stewards of Life
From God to Story, From Story to Life*



학습 모델에 따른 소개 |



월별 주 차마다 다른 학습모델을 활용하여 공과 진행

교육과정의 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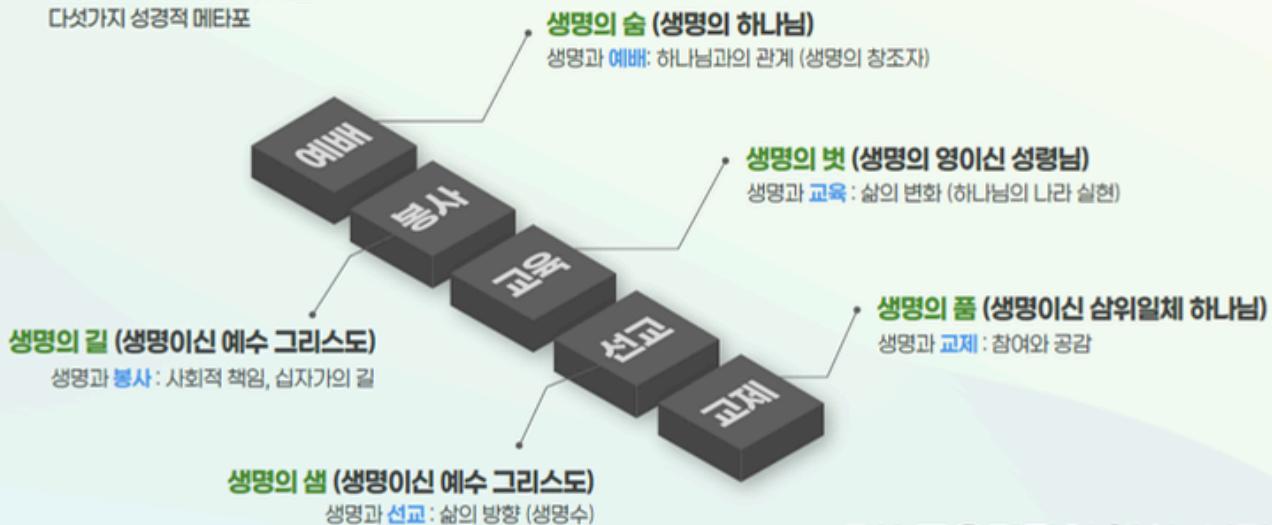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 생명지기 생명의 품다

교육과정의 개념 | 생명



생명의 청지기를 형성하기 위한
다섯가지 성경적 메타포



5차 교육과정의 핵심, 생명

교육과정의 축 |



증인공동체로써 교육과정의 두 축 모델 제공
교육목회 모델과 5주차 교육과정의 순환 구조





복음의 사람 생명의 성시기, 생명지기 생명의 품다

학습페이지 구성 1



PAGE 01

학습동기와 흥미 유발

학습자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이나 활동

삶



PAGE 02

탐구와 발견

성경 본문을 통하여
실재하는 하나님을 경험

말씀



PAGE 04

실천과 습관 형성

매일의 삶을 구체적인 신앙 실천 영역과
연결하는 체크리스트 제공

실천

공과 공부를
삶의 훈련으로
전환

복음

PAGE 03

적용과 내면화

설교노트, 기도문 제공 등 공예배와 연결
말씀의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가져와 적용

매월 1주차 | 이미지 모델



1주

이미지

시각적, 직관적
학습

목적 시각적 인식과 직관을 통한 학습 동기 제공

활동 이미지 자료를 통해 삶의 이야기 공유

구성 이미지 > 연상질문 > 실천의 시각화

이미지 모델은 각 월 1주 차에 진행

이미지 제공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주도적 학습 진행

텍스트 중심 접근에 부담을 느끼는 학습자의 참여 유도

이미지 모델 공과 활용법



	05 MAY	10 Sunday 주말을 여는날 주일	11 Monday	12 Tuesday
실천 (성지기 서약) 개인, 가정, 교회, 학교, 세상 주간 실천		주말을 여는날 주일 주말을 여는날 주일		
13 Wednesday	14 Thursday 주간 금요일	15 Friday	16 Saturday	
한국 기독교를 믿어하고 한반도 평화 찾을 일이다.	부산남동에서 '당진산나라'하고 운동하기, 운동하기	전국 공동체 일을 해온가서라고 걸어보자	제주시에서 행운과 우승하고 가장 활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매월 2주차 | 탐색 모델



성경 본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탐구하는 데 집중

‘말씀’ 파트에서 본문 분석, 어휘 연구 등 다양한 탐구 도구 제공

반복 구문 밑줄 활동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핵심을 발견하도록 안내

탐색 모델은 각 월 2주 차에 진행

성경 본문 집중 연구하며 고민하고 찾아보는 시간



탐색 모델 공과 활용법



나나개원은 사람을 품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묵지 않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사람의 영역에서 벗어나면 멘트했습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창문한 존재임을 보여 주며, 서로 들고 별자리로 환경에 막걸을 떠나입니다.

탐색 TALK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간, 함께 있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뭐인가요?
2.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운 곳에 가정, 교회, 학교에서도 살면서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TITLE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세요

SUMMARY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세요

CHALLENGE
나에게 주시는 도전과 적용의 말씀을 기록하세요

복음 (GOSPEL: 탐색 TALK)

말씀으로 삶 조명하기 새롭게 하기

* 탐색 TALK 가이드

1.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삶에 대한 질문으로 나누기
2. 정해진 답을 주입하기보다 학습자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 방안을 찾도록 안내
3. '생명의 청지기' 개념을 자신의 삶과 연결

매월 3주차 | 상상 모델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활동 (게임, 놀이 등)을 통해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훈련

학습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생명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며 구체적인 상상을하도록 안내

상상 모델은 각 월 3주 차에 진행

창의성과 상상력을 통해 생명의 청지기로서 감각 익히기



청소년부 제5차 공과소개

상상 모델 공과 활용법



11

신앙을 아웃포커싱하라!

교과목 활동내용

1. 죄를 풀거나 나에게 사랑해주세요
어린보통가 음 솔로사역 '난인마 조성을 조리하게 만드는' 노는 부양인가요? 27기자를 고르고,
그 그룹을 편성해요.
- 성인과 함께 ○ 성인은 유아로
○ 혼자운영 분체 ○ 우아에게 다른 활동 ○ 낙지난해에 대한 활동
○ 그 외...
▶ 그 왜하는?

2. 신령 설까 - 지금 내 전쟁 사진은?

- 제임스 손장을 비단으로 틱스런 어떤 조성일까? 디자인 흥취를 고르고 아트를 비운세요.
○ 춤을하는 사람(혹은 이미지)
○ 아동운영 사진(혹은 이미지)
○ 혼자운영 사진(혹은 이미지)

3. 베드로의 기적

-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믿지 못해 기적이 아닐까 믿으려는 사진을 찍으셨어요?
- 하나님을 믿었나요?
- 자신과 다른 사람을 믿었나요?
- 하나님은 카페에서 믿었나요?
- 성장한 사진을 창조로 끌어내고 나에게 그림을 그려 보세요.

▣ 내가 가장 힘들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해 나를 살피고 살피고 살피고 살피고?

교과목 활동내용

- 예수께서 하시 계시 말씀을 과제에서 자기가 믿음을 보이는 청년에 대해 알고 싶어 준비하고
온 거예요(242)
○ 디자인 모션 출판 기도전화와 허리 손에 걸어주거나와 함께 거기 좋은 게시판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문으로 풀들이 일기장에 그는 글을 살펴봐
'난 시장에 예술가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청년이나 다른 사람이나를 찾으세요.
○ 디자인 모션 출판 기도전화와 허리 손에 걸어주거나와 함께 거기 좋은 게시판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문으로 풀들이 일기장에 그는 글을 살펴봐
'난 시장에 예술가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청년이나 다른 사람이나를 찾으세요.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3)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4)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5)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6)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7)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8)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9)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50)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51)

기록지 활동내용

- 기록지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 예수의 말씀 관계 단원, 목표 주제, 결과(242~251)
- 차운영 관계 단원(242년, 놀이, 우아, 혼자운영 주제, 목표 등)

삶 (LIFE:TALK)

학습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활동

* 삶 (LIFE:TALK) 활동 가이드

1. 공동체 활동, 게임 형태의 도입
2. 적극적 참여와 창의적 사고 유도
3.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나눔

상상 모델 공과 활용법



11

신앙을 아웃포커싱하라!

교과목 활동내용

1. 죄를 풀거나 나에게 사랑해주세요
어린보통가 음 솔로사역 '난인마 조성을 조리하게 만드는' 노는 부양인가요? 27기자를 고르고,
그 그룹을 편성해요.
- 성인과 함께 ○ 성인은 유아로
○ 혼자운영 분체 ○ 우아에게 다른 활동 ○ 낙지난해에 대한 활동
○ 그 외...
▶ 그 왜하는?

2. 신령 설까 - 지금 내 전쟁 사진은?

- 제임스 손장을 비단으로 틱스런 어떤 조성일까? 디자인 흥취를 고르고 아트를 비운세요.
○ 춤을하는 사람(혹은 이미지)
○ 아동운영 사진(혹은 이미지)
○ 혼자운영 사진(혹은 이미지)
○ 혼자운영 사진(혹은 이미지)
○ 혼자운영 사진(혹은 이미지)

3. 베드로의 기적

-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믿지 못해 기적이 아닐까 믿으려는 사진을 찍으셨어요?
- 하나님을 믿었나요?
- 자신과 다른 사람을 믿었나요?
- 하나님은 카페에서 믿었나요?
- 성장한 사진을 창조로 끌어내고 나에게 그림을 그려 보세요.

▣ 내가 가장 힘들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에 대해 나를 살피고 살피고 살피고 살피고 살피고?

교과목 활동내용

- 예수께서 하시 계시 말씀을 과제에서 자기가 믿음을 보이는 청년에 대해 알고 싶어 준비하고
온 거예요(242)
○ 디자인 모션 출판 기도전화와 허리 손에 걸어주거나와 함께 거기 좋은 게시판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문으로 풀들이 일기장에 그는 글을 살펴봐
'난 시장에 예술가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청년이나 다른 사람이나를 찾으세요.
○ 디자인 모션 출판 기도전화와 허리 손에 걸어주거나와 함께 거기 좋은 게시판이나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랑의 기도문으로 풀들이 일기장에 그는 글을 살펴봐
'난 시장에 예술가가 되고 싶어'라고 말하는 청년이나 다른 사람이나를 찾으세요.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3)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4)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5)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6)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7)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8)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49)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50)
○ 예수께서 하시 손을 넓이며 그를 불렀으며 그의 말씀이 적용된가에 대해서 묵상하세요(251)

기록지 활동내용

- 기록지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 예수의 말씀 관계 단원, 목표 주제, 결과(242~251)
- 차운영 관계 단원(242년, 놀이, 우아, 혼자운영 주제, 목표 등)

말씀 (WORD:TALK)

성경 이야기를 복음으로 전달하고 학습자 스스로 말씀과 자신을 연결하여 성찰

* 본문 상상 활동 가이드

1. 학습자가 성경 이야기와 주제를 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재구성
2. '상상'을 위한 질문과 활동 제공



상상 모델 공과 활용법



내가 복드로 표현!

Q1. 지금 나에게 가장 우리를 '복드는' 주인은 кто?
Q2.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걸어나갈 때는 무엇인가요?
그때다 땅에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록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을 숙지하는 '복'의 존재에 감사합니다. 예전으로
들어서 전자신 청자신, 저녁 만찬할 때 함께 음식이니 딸기같은 음식을 주제로 풀자
입니다. 다음날 사진, 그림에 글을 넣으신 예술들을 기록하여, 이정에 학교와 생활 속
에서 양분의 청자기로 청자 대로, 민족을 빛이 있고 민족은 예언인 청자기를 맞은
성경과 사랑을 표현하게 하소서. 예언님이 이길까요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 (GOSPEL:상상 TALK)

말씀으로 삶 조명하기 새롭게 하기

* 상상 TALK 가이드

1.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삶에 대한 질문으로 나누기
2. 정해진 답을 주입하기보다 학습자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 방안을 찾도록 안내
3. '생명의 청자기' 개념을 자신의 삶과 연결

매월 4주차 | 스토리텔링 모델



스토리텔링

삶의 이야기를
성서학습과
연결



4주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

'From God to Story'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과정을,
'From Story to Life'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생명지기, 생명을 품다

생명지기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청자기를 의미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생명을 품는 청자기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습 활동을 통해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스토리텔링 모델 학습 과정



내러티브 연결

성경의 이야기와 학습자의 삶 이야기 연결

개인적 의미화

성경 내러티브를 통한 개인적 의미 발견

삶의 적용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 모색

신앙고백

학습자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나누는 과정

내러티브 연결

생명의 청지기로서 자신의 이야기 형성

스토리텔링 모델 공과



총 다섯 과의 스토리텔링 모델

4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행복 바이브'

8과

예수님이 걸으신
생명의 길

12과

교회,
고백의 공동체

17과

Life mate,
믿음 Mate.

26과

하나의 품
One Hug

학습 모델에 따른 소개 1



목적 학습 내용 정리 및 학습 효과 극대화

활동 주제 영상 시청, 말씀 재구성, 자기 평가

방법 영상 시청 및 나눔 > 자가 진단 > 다짐 표현

영상 모델은 다섯째 주가 있는 월의 5주 차에 진행

영상에 익숙한 세대를 위한 학습 모델

제공해 드리는 영상 제목을 검색하여 시청하고 이야기 나눔

영상 소비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배울 성경 말씀과 연계됨을 유념

영상 모델 공과 활용법



I-Faith 내가 믿음을 걸어갑니다

총회 교육자원부 편

1. 들어가는 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세례와 입교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의미 있는 개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교회의 전통 안에서 받은 은혜가 성장해가는 세례와 입교교육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본 교단은 21세기 교리문답과 세례문답집의 개정을 통해 예배 예식, 교리, 신급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아동세례의 시행으로 교인구분이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아동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입교 연령이 13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근간에는 깊은 신학적 성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세례의 권위는 인간의 인지나 교육의 범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할 수 있다는 신앙고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부모의 신앙으로 받는 유아세례와 주체적 신앙으로 받는 아동세례를 인정하며, 나아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세례문답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세례가 지닌 하나님 은혜의 포괄성에 대한 우리 교단의 진정한 신앙고백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입교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닌,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의 능동적 구성원이 되어가는 중요한 신앙교육의 과정입니다.

2. 입교의 정의와 중요성

입교는 초대교회의 교리문답학교(카테쿠메나테)부터 이어져 온 중요한 신앙적 의례입니다. 특히 체코 종교 개혁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입교는 루터와 칼뱅의 종교개혁을 거치며 소교리문답과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통해 체계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고, 경건주의 시대에 이르러 교회의 예식 실천으로서 더욱 꽂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입교는 개신교회의 교육의 역사와 전통으로 자리잡았으며, 현대에 이르러 세계교회는 그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단순한 교리교육을 넘어 예배참여, 봉사활동, 신앙체험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 교육과정으로 확장되었고,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교육기간을 통해 정기적인 멘토링과 소그룹 활동을 진행하며, 청소년기 정체성 형성과 연계된 성인식적 요소도 강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입교교육은 다양한 교육 방법론과 체험활동, 공동체 참여 등을 활용한 전인적 신앙교육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학적, 교육학적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입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에 기반을 두되, 실천 방식에 있어서는 시대적 요구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청소년 입교교육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특히 13세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결정적 시점입니다. 이 때 청소년들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하고 추상적 사고가 가능해지며,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3세 청소년들의 발달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형식적 조작기에 진입하여 논리적,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자신의 사고를 돌아보는 메타인지 능력이 형성됩니다. 감정의 깊이와 폭이 확장되며,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시도하는 등 사회적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13세는 입교교육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도 13세는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자기 결정권을 갖기 시작하는 때이며, 14세부터는 법적으로도 자기 결정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많은 문화권에서 13세를 성인식의 시기로 보아왔듯이,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신앙의 핵심 교리를 이해하고 개인적 신앙고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 성숙도에 도달합니다.

입교교육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은 부모의 신앙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신앙을 형성하고, 교회 공동체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처럼 13세 청소년을 위한 입교교육은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나 신앙교육적 측면에서 모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며, 이는 곧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신앙여정의 새로운 시작점이 됩니다.

4. 입교교육의 방향

4.1 신앙교육의 연속성과 체계성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입교교육은 교단의 신앙고백과 세례문답에 기초하여 체계적인 교육 구조를 확립합니다. 유아세례부터 아동세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교리문답이 하나의 일관된 흐름 속에서 진행됩니다. 이러한 교육 체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죄와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교회와 성례의 의미, 그리고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핵심 주제들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구조화된 교육 체계는 신앙이라는 거대한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교단의 모든 구성원이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구조 안에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교육적 연속성을 반영하여, 유아세례와 아동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이 입교교육을 거쳐 성인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4.2 현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의 발달은 단순히 신체적 성장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의 변화와 세대 간의 차이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청소년 연구들은 이들의 주요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합니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강한 소속감의 욕구를 보이며, 동시에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놀이문화가 등장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교단의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현대 청소년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2 현대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소년의 발달은 단순히 신체적 성장에 국한되지 않고, 시대의 변화와 세대 간의 차이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청소년 연구들은 이들의 주요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합니다.

현대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강한 소속감의 욕구를 보이며, 동시에 자기 결정권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놀이문화가 등장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교단의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현대 청소년들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들의 필요와 상황에 적합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4.3 현대적 교육방법의 적용

현대 교육학의 흐름은 청소년들의 학습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비록 청소년들이 논리적,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발달단계에 있지만, 이론이나 교리를 단순히 인지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넘어, 이를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체험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정서지능이론과 메타인지이론이 부각되면서, 교육에서 서사적 접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적 패러다임의 변화는 신앙교육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교리교육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청소년들이 그 의미를 자신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체험하는 과정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때 일상의 경험은 의미 있는 체험이 되고, 이 체험은 다시 개인의 신앙 이야기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동교육에서 활용되는 '센싱더스토리' 방법론의 핵심 개념은 청소년 교육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적용됩니다. 청소년들의 발달 특성과 요구에 맞춰, 본 교재는 비블리오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체험적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업 활동과 다양한 게임 활동들을 통해 교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적, 서사적 접근은 청소년들이 신앙의 진리를 단순히 아는 것을 넘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신앙 이야기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입교교육은 더욱 의미 있고 효과적인 신앙형성의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교리교육의 목표: 신앙의 내면화와 실천

교리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닌, 신앙의 진정한 내면화와 실천적 삶의 구현에 있습니다. 이는 세 가지 중요한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해하는 신앙입니다. 교리는 단순히 암기하고 학습하는 대상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입교교육을 통해 신앙의 핵심 진리들을 자신의 언어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둘째, '내가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해된 진리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리는 일상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실천되고 경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앙은 생활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실제가 됩니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일상적 경험 속에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셋째, '교회와 세상의 사람이 되는 신앙입니다. 개인의 이해와 실천을 넘어, 신앙은 공동체성과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연대하며, 동시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 차원이 조화롭게 통합될 때, 교리교육은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청소년들은 이 과정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이를 삶으로 실천하며, 교회와 세상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차례

청소년 사도신경 주제가
청소년 주기도문 주제가
들어가며 : 입교는 무엇일까요

- I . 나: 나는 하나님의 거울친구입니다.
- II . 하나님 :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 III . 예수 그리스도 : 예수님은 나의 국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 IV . 성령 : 우리를 이어주는 성령 하나님
- V . 교회 : 믿음이 자라나는 구원의 품
- VI . 성례 : 구원의 문, 믿음의 길
- VII .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사도신경 음원



주기도문 음원



입교의 의미

종교개혁자들은 입교를 교회 입회로, 세례신앙고백의 간증으로 이해했고, 입교식에 축복행위로서 안수와 교회의 중보기도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18세기 경건주의자 스페너(P. Spener)는 회심과 결단을 강조하며, 입교를 공개적인 선언으로 이해했습니다.

세례문답집에서 입교를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자라서, 13세 이상 되었을 때 각자가 당회 앞에서 자기 신앙고백을 하고, 예배 중에 서약을 하는 예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구 교회는 입교를 신앙적 성인식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청소년기에 속하지만, 신앙적으로는 성인과 같은 독립된 신앙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입교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개인적인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 = 62

Music by 백하슬기

A E/G# F#m7 A/E DM7 Esus4 A
나는 전능하 — 신아버지 — 하 나님 —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나는
5 D(add9) E C#m7 F#m7 Bm7 Esus4 E
그의 유일하신 아들 — 우리 — 주 예수 그리스도를 — 믿습니 다 그는
9 A E/G# F#m7 A/E DM7 E A
성령으로 임태되어 — 동정녀 마리아에게 — 서나시고 — 본디 오
13 D(add9) Esus4 A/C# F#m7 Bm7 A/C# D(add9) Esus4
빌라도 — 에게 — 고난을 — 받아 십 자가에 — 못박혀죽 으시고 — 장사
17 F#m7 E/G# A A/C# D Bm7 Esus4 E
된지사흘만 — 에죽은자 가운데서 — 다 시살아나셨으며 — 하늘에오르
21 DM7 A/C# F#m7 Bm7 Esus4 A
시어 — 전능하신 아버지 — 하나님 — 우편에 — 앉아계시다가 — 거기로부
25 DM7 DM7/E A/C# F#m7 Bm7 A/C# D B/D# Esus4 D/E E
터 살아있는 자와 — 죽은자를 심판하려오십니다 — 나는
29 A E/G# F#m7 A/E D E A
성령을 믿 — 으며 — 거룩한공 — 교회와 — 성도의교제와
DM7 D/E A/C# F#m7 Bm7 A/C# DM7 E Bm7 E A
— 죄를 용서받 는 것과 —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 — 습니다 — 아멘

주기도문

♩=62

Music by 백하슬기

생명문명·생명목회 순례10년(2022~2032)

생·생·순 10년(2022~2032) 장기정책문서

PCK Ecumenical Decade for Pilgrimage of
Life-centered Civilization and Ministry(2022-2032)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숨 쉬고 생명이 샘솟는 지구생명공동체

생명의 숨, 약속! 생태영성을 갖춘 교회

생명의 벚, 상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생명의 길, 살롱! 평화를 다리 놓는 교회

생명의 품, 포용! 환대하는 교회

생명의 망, 소통! 디지털 친화적 교회

생명의 샘, 잔치! 온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생명문명 생명목회순례 10년 (2022~2032년)

PCK Ecumenical Decade for Pilgrimage of Life-centered Civilization and Ministry(2022-2032)

비전 :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 생명이 숨쉬고 생명이 샘솟는 지구생명공동체

미션 :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제자도(거룩한 순례자 - 생명의 하나님 나라 구현)

목표 : 생명이 충만한 교회, 생명이 숨 쉬고 생명이 샘솟는 세상

생명이 충만한 교회	시대의 정조	슬로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제자도	생명목회	순례(운동)	담당부서
생태영성을 갖춘 교회	기후 위기	생명의 숨 약속	인간중심에서 생명중심으로	생태목회	창조세계보전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회봉사부훈련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도시화 와 지역 소멸	생명의 벗 상생	각자도생에서 상생으로	마을목회	선교적교회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회봉사부국내선교부농어촌선교부훈련원
평화를 다리놓는 교회	전쟁과 폭력	생명의 길 살롬	폭력에서 비폭력으로	살롬목회	평화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회봉사부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훈련원
환대하는 교회	이주민 난민	생명의 품 포용	배제에서 환대로 환대에서 연대로	다문화목회	환대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해외·다문화선교처훈련원
디지털 친화적 교회	디지털 시대	생명의 망 소통	소외에서 연결로	디지털친화목회	생명망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행정재무처훈련원
온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고령화 저출생 1인가구	생명의 샘 잔치	단절에서 통합으로	온세대 목회	생명의잔치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교육자원부사회봉사부훈련원

생생순10년운동동영상



생명문명·생명목회순례10년

(생·생·순 10년(2022~2032) 장기정책문서)

PCK Ecumenical Decade for Pilgrimage of Life-centered Civilization and Ministry(2022-2032)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이 숨 쉬고 생명이 샘솟는 지구생명공동체

생명의 샘, 잔치! 온 세대가 함께하는 교회

소외와 고립을 넘어 존중과 연결의 공동체로

성경구절

시편 36편 8~9절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로마서 12장 4~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려하니라”

신앙고백문

5.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예배용)

목표

1.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한 몸 교회 공동체 정체성 확립
2.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생명공동체로서 환대와 상호 돌봄 실천
3. 교회 안의 세대 간 단절과 소외를 극복하고, 각 세대가 안고 있는 영적, 관계적, 사회적 필요와 아픔을 보듬어 안으며, 다양한 은사로 건강한 교회 세우기
4. 저출산 고령화, 세대 비율의 급격한 변화 가운데 중소형 교회를 위한 온세대 목회 실천 지원 제공
5.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공동선을 실천하고,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는 사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실천하는 교회 세우기

1. 상황인식

1) 세대 갈등과 공동체성의 상실

한국교회는 교회 내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 교회 내의 세대 갈등 문제는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는 성도 간의 세대 갈등은 크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소 복잡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일반 국민의 80%가 세대 갈등이 있다고 보는 것에 비해, 기독교인은 20%만이 세대 갈등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교회 내 세대 갈등이 적다고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39%는 ‘교회 분위기상 서로에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서’라고 답을 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에서는 세대 간 배려와 소통을 교회 밖보다 잘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31%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18%는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세대 갈등이 자연적으로 줄어들어서’라고 답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교회 내 세대 갈등에 대해 일반 사회와 달리 보다 복합적인 견해를 보인다.

하지만 밖에서 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확연히 부정적이다. 한국교회가 세대 갈등을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 한국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23년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에 대해 부정적 신뢰도가 74%에 이른다.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로는 불교(23.2%)와 가톨릭(19.9%)에 이어 기독교(19.6%)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호감 가는 종교에서도 가톨릭(24.7%)과 불교(23.4%) 다음으로 기독교(16.2%)가 위치했다. 즉, 한국인에게, 표면적으로나마 잘 알려지고 친근하게 여겨지는 종교가 불교라면, 기회 되면 더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종교가 가톨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더 잘 알고 호감이 있는 종교의 이야기에 더 쉽게 마음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편이라고 할 때, 위 결과는 기독교의 목소리가 한국 사회에 힘 있게 들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 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이바지를 하는 종교로 응답자의 26.4%는 가톨릭을 꼽았고 15.4%만이 기독교를 꼽았다. 물론 없다(39.8%)는 답이 가장 높았지만,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근대화에 압도적인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평가는 좋지 못한 점이 아쉽다. 더 아쉬운 것은 미래에 대한 기독교의 기대치이다. 한국교회가 미래 사회에 얼마나 이바지하겠는가 하는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이 69.6%에 달했다. 100여 년간 한국 사회와 함께한 기독교지만 오늘날 한국인에게 친근하지도, 알고 싶지도 또 기대하지도 않는 종교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여 씁쓸하기만 하다.

2) 1인 가구와 노년 세대의 증가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갈등 속에 놓여 있다.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있다. 10여 년 사이에 고령화,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그 사이에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세대 갈등 및 사회적 고립과 같은 사회 문제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먼저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첫 번째 인구소멸 국가라고 예견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미국의 경제 예측 전문가 해리 덴트는 「인구절벽」에서 소비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45~49세가 줄어드는 시기에 들어서면 소비가 급속히 하강한다는 뜻에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인구절벽 현상은 인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8.2로 고령사회(인구의 14% 이상이 고령인 사회)에 진입하였고, 내년에는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프랑스가 고령화 사회 진입 이후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기까지 155년이 걸린 반면 우리나라 단 25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대수명도 점점 늘어나서 2009년 기대수명은 처음으로 80세를 넘어섰고, 2040년에는 86세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65세 이상 노인들 스스로는 70세 이상은 돼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83.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에다가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출생율 저하가 인구절벽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10년 넘게 초저출산 국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지금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가임여성 1명이 아이를 평생 채 한 명도 낳지 않았다는 얘기다. 최근에는 출생율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출생율로 따져도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 수 역시 정부 전망보다 더 급격하게 감소해 작년에 24만 9천명으로 2020년에 이미 '한 해 신생아 30만 명 선'이 무너졌고 2026년에는 '20만 명 선'도 깨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 신생아 수는 1971년 102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88올림픽까지도 63만 명을 유지했으나, 그 뒤 점점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부와 학계가 지난 20년간 '신생아 30만 명'을 심리적 저지선으로 놓고, 관련 정책을 고민해왔는데 40만 명 선이 깨진 지 3년 만에 30만 명도 봉괴하였다. 이는 그동안 통계청이 내놓은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보다 14년이나 앞당겨진 수치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한해 출생하는 신생아 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감하고 있는 추세다. 출산율 하락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서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현 추세대로라면 2012년 6월에 5천만 명을 돌파한 현재 인구가 2045년부터는 적정 인구를 밑돌아 인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2050년에는 440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그리고 210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2300년 경에는 한반도에 인간이 사라지는 인구 소멸 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는 한국이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하여 인구절벽이 차가운 현실이 되었다.

3) 개인주의 풍조와 1인 가구의 증가

외형상 인구 감소가 큰 문제인데 우리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에 없이 개인주의 풍조가 널리 퍼지면서 공동체적 환경이 더욱 크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 1인 가구의 증가이다. 지난 30년간 한국 가족 형태의 변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부부와 미혼 자녀 중심의 핵 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3세대 확대 가족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안정된 형태의 정형 가족은 줄어드는 반면,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부모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1인 가구 비율은 3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1인 가구의 85.7%는 '혼자 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고 응답했고,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가 어렵다'(35.9%)고 답했다. 1인 가구의 76.1%는 '혼자 생활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으며, 심리적 어려움의 주요 이유는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20.2%)', '할 일이 없는 시간이 많아 무료함(15.0%)',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고독감(14.5%)' 순으로 답했다. 서울시의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에서는, 주말 저녁에 혼자 식사한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이 무려 93.2%에 달했다. 중장년 1인 가구 30%는 최근 3개월 내 접촉한 사람이 없어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와 같이 1인 가구의 급증이 질병, 소외, 빈곤 등 사회병리 현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혼자 사는 삶이 트렌디하고 세련되어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전통적 빈곤 문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공동 생활에 따른 비용 절약 효과 등이 없어 빈곤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그리고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고용, 소득, 주거, 의료, 안전 등에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1인 가구의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월세를 내고 사는 미혼 1인 가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전세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미혼 1인 가구의 형편이 매우 나빠진 것이다.

또한 전체 1인 가구 중 방 하나에 살고 있는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는 '단칸 방'에 살고 있는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이미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가 된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뿐만 아니라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2030 세대의 고독사도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중장년층도 문제이다. 고독사 통계에 의하면 독거노인보다 40-50대의 고독사 비율이 더 높고, 50대 고독사가 가장 많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독사 통계에서 5년간 고독사 사망자는 매년 평균 약 9%씩 증가했고, 지난 해 사망자 3378명은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로 2017년에 비해 40% 증가한 것이다.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여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50·60대 남성 고독사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4) 교회의 인식과 정체성의 변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회는 스스로 공동체를 이를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세대를 통합하고 신뢰와 이타심의 규범을 통하여 불확실하고 파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이웃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 부름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생명공동체로서 환대와 상호 돌봄을 실천하며, 더불어 성숙하는 공동 순례자로서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 안의 세대 간 단절과 소외를 극복하고, 각 세대가 안고 있는 영적, 관계적, 사회적 필요와 아픔을 보듬어 안으며, 다양한 은사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힘써야 한다. 이를 통해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공동선과 화해를 매개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2. 신학적 성찰

1) 생명의 샘:

생명의 샘으로부터 기쁨의 잔치를 경험하는 온세대 생명 공동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며 생명 충만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 사명을 수여하셨다. (창2:7; 1:28)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범죄하여 죽음의 숙명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나이가 많아 마치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고 복을 누리게 하셨다. (히11:12; 창12:1-2) 이는 오직 생명의 원천이자 샘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었다.

생명의 샘(마코르 하임)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곳이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원천이다. (시36:9)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샘에 모여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할 때 그곳에서 기쁨이 회복되며 참된 하나님 나라 잔치가 벌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일꾼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셨을 때 그 물이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하였으며, 이를 통해 혼인 잔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었다. (요2:7-11) 또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의 근원임을 선포하셨을 때,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몰려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잔치를 경험하였다.

다양한 세대가 모인 온세대 교회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찬양하며 노래하는 생명 공동체이다. 나이와 살아온 경험은 각자 다르지만, 교회 공동체에 모인 다양한 세대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가운데 참된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요시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을 불러모아 그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다짐하며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다. (왕하23:1-3) 이는 다양한 세대로 모인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중심에 삼으며 회복과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여는 모습을 의미한다. 생명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온세대 교회 공동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생명력을 자랑하듯(시1:2-3), 이 시대의 도전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생명 목회를 실천하게 된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다양한 세대가 생명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함께 자라나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 (엡4:15-16)

2) 단절에서 화해와 연합을 지향하는 온세대 교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세대로 모인 교회가 세상에 만연한 단절과 분열을 향해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는 신적 기관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시기와 분쟁을 일삼으며,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 참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한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엡2:14-20)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심으로써 다양한 세대는 서로 연결하여 주의 성전이 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실 처소가 된다.(엡2:22) 이와 같이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온세대 교회는 세상 속에서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 받는다.

또한 교회는 다양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각양의 은사와 사랑으로 세워져가며 세상 가운데 참된 공동체의 모범으로 살아가도록 요청받는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각 지체가 각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듯,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과 장년, 그리고 노년 세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롬12:4-8) 이러한 유기적인 생명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진 온세대 교회는 자신의 나이와 경험이 겹손과 상호 존중과 궁휼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으며,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 온세대가 교회가 되는 일은 깨어 분별함으로 세울 수 있다.(롬12:16-17)

온세대 교회는 낮은 자와 연약한 자를 품어 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자리를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을 지닌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가난한 자와 눈먼 자, 억눌린 자와 낮고 작은 자를 향한 기쁜 소식이었다.(눅4:18-19)

이 기쁜 소식은 교회 안에서도 낮고 작은 자들에게,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에게도 향한다. 서로 기능이나 나이나 은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평할 수 없고, 미숙하고 불품 없어 보이는 세대를 소외시키거나 단절하기보다 서로 걱정하며 함께 아파하고 또한 함께 기뻐할 때 (고전12:22-27) 온세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세워져가게 된다. 입시와 경쟁으로 고통 받는 자녀 세대, 불평등과 경제적 궁핍과 소외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젊은 세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인해 실존적, 사회문화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부모 세대와 노년 세대, 이 모두가 참된 화평과 사랑을 경험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온세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고통받고 소외되며 단절과 분열을 경험하는 세대를 향해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려면, 우선 교회가 세대 간 단절을 사랑과 겸손으로 극복하며 한 성령 안에서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3) 하나님 나라 생명 사역을 위한 협업 공동체

절망과 갈등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치유와 화해를 실천하는 온세대 교회는 다양한 세대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협력하는 중언공동체이자 상생공동체이다. 온세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명을 함께 공유하며, 복음 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사명을 위해 협업하는 교회이다.

요엘 선지자는 한 성령 안에서 자녀 세대는 하나님의 도래를 선포하며, 노년 세대는 노년 세대는 하나님의 공의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꿈을 꾸고, 젊은 세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실 궁극적인 화평과 이상을 볼 것을 선포했다.(욜2:28) 이러한 종말론적 약속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기 시작했으며 (행2:17), 이 약속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행2:39) 이를 통해 다양한 세대가 모인 교회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마음과 힘을 모아 대안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었다.(행2:44-47)

하나님 나라 생명 사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세대에게 주신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하며 생명 망을 구성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소비주의를 지향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도전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 세대를 낳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중언공동체를 세우며 생명의 풍성함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생명공동체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초저출생, 세대 갈등과 세대 불균형의 문제를 포함하여, 생명 보존과 환대, 정의와 평화, 상생과 환대를 실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생명의 풍성함을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고백하며 생명존중 문화를 세우는 일을 위해 협업해야 한다. 그리고 생명 경시 풍조를 야기하는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해 예언자적 상상력과 대안적 창조성을 가지고 함께 응전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선의 가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회가 상생하는 생명공동체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가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안주하기보다는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한 고통에 함께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봉사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전도와 환대와 생태계 회복 운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다.

또한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도 각자의 세대가 직면하는 돌봄과 부양의 문제, 고립과 건강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동 사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어린이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화해과 환대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협업하는 종말론적 소명 공동체로 살아갈 때 전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며 함께 성장하고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3. 로드맵

연도	주요 단계별 핵심과제
2025~2027 (1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회 차원의 생명 운동/생명 목회로서 온세대 교회의 신학적, 목회적 방향 정립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변화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및 사회 구조 변화 및 교회 내 세대구성 변화에 따른 중장기적인 온세대 목회 방향 마련 교회 공동체 내 다양한 세대 이해 및 세대 간 단절과 갈등 파악 중소형 교회의 세대통합 예배/교육 현황 및 필요 전수 조사 온세대 목회(예배, 교육, 봉사, 친교, 선교 등)의 신학적, 목회적 방향 정립 총회/노회 차원의 온세대 목회 매뉴얼 제작
중간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세대 교회 및 목회에 대한 인식 변화 및 방향 점검 교회 지역 및 규모 등 다양한 실천 현황 확인 온세대 목회 매뉴얼 활용 피드백
2025~2031 (2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온세대 목회 매뉴얼 보완 작업 지역교회별 온세대 목회(예배, 교육, 봉사, 친교, 선교 등) 사례 및 실천 공유 확대
2032	평가 및 향후 방향 제시

4. 실천지침

1) 지역교회 차원

- 지교회는 총회와 노회의 생명운동/생명목회 중심의 온세대 목회 방향에 근거하여 각 교회 상황에 맞춘 온세대 목회 실천지침을 작성하고 실천한다.
- 교회는 생명운동/생명목회의 일환으로서 온세대 교회의 방향성과 비전을 모색한다.
- 교회는 다양한 세대로 모인 교회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임을 예배와 설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 교회는 초저출생, 인구절벽,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문제가 개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공적 책무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주지하도록 신앙교육을 한다.
- 교회는 교회 내 세대 갈등 및 소통 문제, 세대불균형 등의 문제를 파악하고 당회 및 제직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응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 교회는 세대 간 편견과 오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식조사 및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온세대 교회를 방해하는 장애요소를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한다.
- 교회는 세대 간 환대와 상호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정기적인 기회를 마련한다.
- 교회는 교회 내 신앙세대주로 참석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이 목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 교회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할 수 있는 목회적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돋는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 교회는 교회 내에 다양한 세대의 신앙 경험 공유 및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공간(공유 게시판, 신앙경험 나눔터 등)을 제공한다.
- 교회는 온세대 목회 (예배, 교육, 봉사, 선교, 친교)의 확대 및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세대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공동체적 신앙생활의 질을 개선하도록 한다.
- 교회는 다양한 세대가 생명 운동과 생명공동체 회복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실천한다.

2) 노회차원

- 노회는 정책총회 사업노회의 기조에 따라 총회의 생명운동/생명목회 일환으로서 온세대 목회 지원 및 실행지침을 실천한다.
- 노회는 총회의 온세대 목회 로드맵이 지교회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 노회는 교회학교 부재 및 봉사자 부족, 세대불균형 등 노회 내 교회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 노회 내 교육자원부 산하에 온세대목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연구하도록 한다.
- 노회는 지교회의 온세대 목회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생명운동 및 생명목회의 일환으로서 온세대 목회 프로그램 개발을 활성화 한다.
- 노회는 농산어촌 지역의 세대통합 목회 현장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거점형 세대통합 목회 지원방안을 제공한다.
- 노회는 신학대학교 및 총회와 협력하여 생명 경시 및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목회자 및 평신도 계속훈련을 제공한다.

3) 총회 차원

- 총회는 생명운동/생명목회의 일환으로서 온세대 교회의 신학적, 목회적 방향 정립하여 노회와 지역교회에 알린다.
- 총회는 초저출생, 초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문화 현상을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 협업하여 원인 및 대안을 분석하고 생명 존중과 생명공동체 회복 운동을 전개한다.
- 총회는 인구학적, 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한 교회 형태 및 세대별 구성 현황 전수 조사하여 변화하는 교회의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 총회는 교단 내 중소형 교회의 세대통합 예배/교육 현황 및 필요를 전수 조사하여 교단 차원에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 총회는 교회 공동체 내 다양한 세대 이해 인식 및 세대 간 단절과 갈등에 관한 조사 (양적 조사, 인터뷰, 사례 연구 등)를 수행하여 목회적 대안 모색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 총회는 온세대 목회(예배, 교육, 봉사, 친교, 선교 등)의 목회실천을 연구하고 지도력 계발 세미나를 제공한다.
- 총회는 농산어촌 및 지역교회에서 활용 가능한 온세대 교회 매뉴얼을 제작하고, 온세대 예배와 교육 등 다양한 실천을 돋는 교재를 개발 제공하도록 한다.

5. 프로그램의 실제 및 사례 소개

1) 영주교회

(1) 교회에 속한 전 세대가 세대통합 교회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준비

- 세대통합(온세대) 사역을 실천하기 전에 온세대 교회로의 인식 전환 시도
: 비전 제시-사전교육-교육과정 디자인
- 세대통합사역 비전 수립: 세대 간 신앙 전승과 부모 세우기
- 부모 세대를 온세대 목회의 핵심으로 보고, 다음세대 부모가 세대통합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대안 창출하는 기회 제공

(2) 온세대 예배 실천 (공예배, 가정예배)

- 세대통합 예배: 1부 예배 (주일 09:50), 2019년 9월 이후 4년차
- 세대통합예배를 위한 설문조사 (2회): 교회 구성원 분석, 가치관 확인 (가족 교회, 전통 중심의 교회, 도시 교회)
- 세대통합 예배의 방향: 부모와 자녀가 매주 함께 드리는 예배, 예배 예전 및 예배자 이해를 성도-부모-목회자가 함께 공유하고 준비
- 예배의 구성: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예배 위원, 온세대 친화적 설교, 월 1회 교육부 교역자의 음니버스 설교, 신앙세대주 학생과 교사가 동석
- 설교-교육-가정예배 메시지의 통일 (원 메시지)
- 가정예배 운동

(3) 온세대 목회 구조로 재편

- 부모 교구 편성: 자녀 교육과 부모의 신앙 중심을 강조하는 교구 편성 및 정기적인 부모 세대 교육
- 수요 장년 교회학교: 세대통합 및 부모 세대의 신앙 증진을 위해 60세 이상 장년 교회학교 조직 (장년세대통합팀 중심). 장년 성경 통독 수업, 수요 문학제, 기독교 역사 탐방, 꿈꾸는 3막 커리큘럼 등 진행
- 전세대 공동 신앙 훈련: 전교인 성경학교 (사순절기와 대림절기를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 활동

(4) 생명 운동과 일상 신앙을 위한 세대통합 봉사 및 실천

- WWJD (What Would Jesus Do?): 일상 생활 속 온세대 사역
- 지키미 (기독교 환경 실천팀) 운영: 젊은 부모세대 중심으로 조직. 기후변화와 환경 오염 세미나, 사순절 탄소금식 주간 실천, 생태적 성경읽기, 재활용품 활용 전시회, 데코용품 재사용, 줍줍 운동 (지역 쓰레기 줍기), 남산 도시새 보기, 남산 숲 조사, 교회 태양광 설치, 제로 일회용품 사용운동 등 진행
- 세대 간 1:3 멘토링: 청년부-3040 선교회 중심

2) 송도동춘교회

(1) 온세대가 함께 하는 교회의 방향성 수립

- 시대와 세대와 지역을 품는 교회를 목표.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모델로, 온 세대가 함께 만들어 가는 교회를 비전 표방
- 가정과 교회가 함께 (손)자녀 세대를 제자로 삼는 교회

(2) 온세대 예배 및 가정예배

- 온세대 예배를 위한 공감대 선포 (온세대 예배 실천 전 6개월 이상 조부모-부모-자녀의 신앙교육 및 온세대 예배의 중요성에 관한 비전 공유)
- 교역자 및 당회원/교육부서장 사전 교육: 온세대 예배 관련 도서 독서 및 관련 세미나 참석
- 주일 예배의 구성: 다양한 세대가 예배 순서 참여 (찬양, 기도, 성경봉독 등),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위한 설교는 따로 선포 (차세대 말씀 선포, 담임목사 설교)
- 온세대가 함께 하는 성찬 및 세례
- 가정예배 묵상집 제작 (동춘마실)

(3) 온세대 신앙교육 및 프로그램

- 3세대 신앙교육 세미나 진행: GPS (부모 신앙 및 가정예배 세미나), EPS (조부모 및 교회 성인 세대 대상, 손자녀와 함께 하는 3세대 가정예배 교육)
- 온세대가 함께 하는 금요예배, 목요집회
- 온세대가 함께 하는 뮤지컬

3) 금당동부교회

(1) 세대통합(온세대) 목회를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을 설정

- 2003년 교회개척부터 세대통합 목회와 예배 실천
- ‘가정인 교회, 교회인 가정’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3세대 신앙 전승 강조

(2) 세대통합 예배 실천

- 매주 세대통합 예배
-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세대 통합 예배 강조
- 부모-자녀 세대, 혹은 3세대가 함께 동석. 신앙세대주 학생은 자녀가 없거나 출가한 항존직이 대리 부모로서 함께 동석.

- 예배 드레스 코드 통일 (절기에 맞추어 같은 색의 옷을 입고 전 세대가 예배)
-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대표기도자
- 각 세대 개인별 현금 봉투 및 봉투꽃이 마련
- 세대통합 찬양대 (4,5번째 주일)

(3) 온세대 교육 및 친교

- 온세대 세례, 입교, 유아세례 예식
- 세대 간 통합 예배 사이에 교육부서 교육
- 가정생활 교육 프로그램: 항준직 부부 수양회, 부부 소통 결혼 알파,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 피플퍼즐 (자녀 기질 교육), 예비부부교실과 한부모교실 등
- 가정양육 프로그램 및 가정단위 사역 운영: 세대 간 교제를 위한 그룹 모임 (기도 그룹, 성서연구 그룹, 찬양 그룹), 가족 재결합의 날 (예배 후 가정에서 만들어 온 음식 나눔), 세대 간 교제를 위한 학습 경험 (성극, 탐방), 가정 집단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공동체 조직), 가족 캠프, 가족 세대 기도회 등
- 세대 간 친교활동: ‘형야아 놀아줘, 언니야 놀아줘’ (세대 간 등산, 스포츠, 놀이 친교), 기도 손운동 등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지침

(제110회 총회 채택, 2025.9.25)

총회 교육자원부는 제99회 총회에서 교단 소속 교회 중 75% 교회가 교회학교 담당교역자가 부재한 현실을 직시하여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신도 자원봉사 교회학교 지도사' 제도를 결의하였습니다. 이후 본부서는 매년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를 양성해 왔으며, 교육방송센터와 교육자원부 채널을 통해 예배 및 설교 영상을 송출하여 이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교육사 매뉴얼에 대한 논의는 제107회기부터 시작되어 제108회기에 연구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제109회기 평신도교육사 제도를 위해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헌의에 따라 수임된 연구를 통해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지침'(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운영지침은 본래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 매뉴얼'로 시작하였으나 현장의 의견과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지침'(안)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연구한 것입니다.

제1장. 교회학교 교육사 이해

1. 정의

'교회학교 교육사'란 지교회의 인정을 받은 평신도가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교회학교 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사역자를 의미한다.

2 취지

지교회 담임목회자의 추천을 받은 평신도가 총회에서 규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지교회의 교회학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 업무

'교회학교 교육사'는 담임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따라 해당 교회학교 담당 부서를 운영한다.

4 자격

- 가.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 중에 담임목회자가 추천한 자에 한하여 훈련 자격이 주어진다.
- 나. 총회가 규정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총회(교육자원부 담당)가 승인한 기관에서 이수하여 수료증을 취득한 자에게 활동 자격을 부여한다(단, 일정기간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

5 활동비

활동비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교회의 형편에 따른다.

6 운영개요

- 가. '교회학교 교육사' 교육 시행 계획 수립
- 나. 참가자 모집
- 다. 교육시행
- 라. '교회학교 교육사' 현황 관리
- 마. 보수교육 시행

제2장. 시행과정

1. '교회학교 교육사' 교육 시행 계획 수립

- 가. 시행을 원하는 기관(노회, 노회 연합, 지 교회 연합)은 교육 개최 3개월 전 노회 공문으로 총회교육 자원부에 '교회학교 교육사 개설신청서(별첨1)'와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동의서'(별첨2)를 제출한다.
- 나. 총회 교육자원부는 '교회학교 교육사 개설신청서'를 접수하여 실행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허락받아 해당기관에 통지(별첨3. '교회학교 교육사 개설 허락통지서')한다.
- 다. '교회학교 교육사 개설 허락 통지서'를 받은 기관은 교육 개최 2개월 전에 총회 교육자원부에 '교회학교 교육사 교육계획서'를 제출한다. 교육계획서 작성 시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지침'의 '제3장 교육과정'을 참고한다.
(※필수 기재 사항 : 과목, 강사, 교육시간, 운영계획, 예산안 등).
- 라. 총회 교육자원부는 '교회학교 교육사 교육계획서'를 검토하고, 해당 기관 담당자와 조율하여 최종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2. 참가자 모집

- 가. '교회학교 교육사' 교육 주최 기관(이하 교육 주최 기관)은 적절한 방식을 통해 교육내용을 공고한다.
- 나. 모집 공고에는 다음 신청 서류를 반드시 포함시킨다.
 - 신청 서류
 - 1) 교회학교 교육사 참가 신청서 [별첨4. 교회학교 교육사 참가신청서]
 - 2) 담임목회자 추천서
- 다. 교육 주최 기관은 참가서류를 검토하여 교육 참가를 수락한다.
- 라. 이 외의 후속사항은 교육 주최 기관의 관례에 준하여 시행한다.

3. 교육시행

- 가. 교육계획서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다.
(단, 교육 과목 및 교육 강사 변경할 시에는 총회 실무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친다.)
- 나. 교육시행은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지침'의 '제4장 운영세칙'을 이행한다.
- 다. 교육시행 종료 후 교육 이수자 명단을 노회에 보고하고, 노회는 총회 교육자원부에 보고한다.
- 라. 총회 교육자원부는 총회 임원회에 명단을 보고하고, 총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제작한다.
- 마. 교육 주최 기관은 교육 이수자에게 수료증을 배부한다.

4. '교회학교 교육사' 현황관리

- 가. 교육주최 기관은 회기별 교육 이수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 나. 노회는 정기노회 교육자원부 보고 시 '교회학교 교육사' 수료자 명단 및 재적을 보고한다.
- 다. 노회는 교육자원부 내에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 위원회'를 둔다.

5. 보수교육시행

- 가. '교회학교 교육사'는 자격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수교육에 참석하여 자격을 연장해야 한다.
(단, 보수교육 유예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사유서(별첨5-교회학교 교육사 보수교육 유예 사유서)를 받는다.)

- 나. 보수교육은 교육주최 기관과 총회 교육자원부가 협력하여 진행하며, 현장의 상황에 맞는 교육과정 설계 및 교육시행을 진행한다.
- 다. 총회 교육자원부는 매 회기마다 '교회학교 교육사 대회'를 개최한다.

제3장 교육과정

1. 개요

'교회학교 교육사'는 담임목회자의 위임을 받아 교회학교의 제반 사항을 운영하는 바, 그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므로 교육훈련에 있어서 다음의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교육이수단위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을 합하여 20강 이상 개설하고, 집중과정(집체교육)을 진행한다.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에는 필수과목을 12강 이상, 선택과목을 8강 이상 배정하도록 한다)

3. 필수과목

번호	영역	과목명	세부내용
1	교단이해	교단이해	- 예장통합의 역사 - 예장통합의 교단신학과 정체성 - 예장통합의 목회
2	평신도 교육사 이해	교육사이해	- 평신도 교육사의 사명과 역할 - 교회교육의 목적 - 통전적 교육목회의 이해
3	성서학1	구약성서	- 구약 성경 개관 - 구약 성경 핵심내용과 주제
4	성서학2	신약성서	- 신약 성경 개관 - 신약 성경 핵심내용과 주제
5	조직신학	조직신학	- 조직신학의 이해 - 신론,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6	기독교윤리	기독교윤리	- 기독교 윤리의 이해 - 기독교 윤리의 현대적 과제와 응답
7	교회사	교회사	- 시대별 교회사 - 한국교회사
8	예배학	예배학	- 예배에 대한 예전적, 신학적, 교육적 이해 - 교회학교 예배와 실천
9	설교학	설교학	- 설교의 정의, 내용, 방법 - 복음의 기초, 캐리그마와 디디케
10	선교와 전도	선교/전도	- 교회교육의 선교와 봉사 - 다양한 전도 사례 연구 - 지역 특성에 맞는 전도 방법 탐색
11	교육과정과 방법	교육과정/방법	- 교육과정의 이해 - 교단 공과공부 교재 분석 및 사용법 - 교육방법과 교육평가
12	교육행정	교육행정	- 교육행정의 이해와 교육 리더십

4. 선택과목

번호	과목명	세부내용
1	교회학교 찬양팀 운영	- 예배 찬양, 울동배우기 - 찬양팀 운영 등
2	특별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 여름·겨울 성경학교(수련회) - 새친구 초청 등 특별 행사 - 절기 행사
3	가정-교회 연계 교육목회	- 가정-교회 연계 교육목회의 성경적, 목회적 요청 - 가정-교회 연계 다양한 모델소개와 전략제시
4	AI와 미래 교회학교	- 생성형 AI 이해와 교육목회의 관계 -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목회의 사례와 전략 - 교육 콘텐츠 제작
5	새친구 정착과 운영	- 새친구 반운영과 교육목회 - 새친구 교육방법과 전략
6	교회교육 코칭	- 기독교 코칭의 이해 - 코칭의 실제와 적용
7	다양한 세대와 함께하는 교회교육	- 세대통합 목회의 이해와 실천 - 대인관계 개선 및 세대간 소통과 갈등 해결
8	교사이해	- 교사의 역할 - 교사회의, 경건회, 부서운영
9	학생이해	- 연령별 학생이해 (심리발달, 정서발달, 신앙발달) - 연령별 학생이해에 따른 교육목회 전략
10	반목회	- 반 운영과 학생관리 - 공감과 소통 - 온라인 반목회와 실천

제4장 운영세칙

1. 교회학교 교육사'의 업무는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지침'을 따른다.
2. 본 제도는 총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소지한 자만을 인정하며, 교육 주최 기관과 참가자는 총회의 결의와 운영을 준수해야 한다.
3. 교회학교 교육사는 최초 신청한 교회에서만 사역할 수 있다.
4. 교육 참가자는 '담임목회자 추천서' 작성 시 이력서, 세례(입교)증명서, 신앙고백서, 기본증명서(상세)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5. 교육 주최 기관은 사업운영 담당자를 두며, 그 담당자는 총회 교육자원부가 주관하는 워크숍에 참여 해야 한다.
6. 교육 주최 기관은 교육 시 시간 별 출석체크를 철저히 하고, 참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경우 반드시 보강하도록 한다.
7. 총회 교육자원부는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 위원회'를 상설로 둔다.
8. 교육과 운영 중 규정 외의 문제는 총회 교육자원부의 통상관례에 준한다.
9. '교회학교 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수료증을 받은 후 담임목회자(또는 당회)의 승인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다.

별첨1>

교회학교 교육사 개설청원서

본 노회는 다음과 같이 교회학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자 하오니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노 회	
교육주최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인원	
담당자	
연 락 처	

붙임.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동의서 1부.

년 월 일

노회장 성 명 (노회직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자원부 귀중

수신 : 총회장

참조 : 총회교육자원부장

별첨2>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동의서

본 노회는 총회의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 교육사 관리 등 교육과 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과정을 운영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노회장 성명 (노회직인)

별첨3>

제 호

교회학교 교육사 개설 허락통지서

총회 교육자원부는 다음과 같이
교회학교 교육사 교육과정 개설을 허락하오니
총회의 교회학교 교육사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 회	
교육기간	
교육장소	
교육인원	
담당자	
연 락 처	

년 월 일

총회교육자원부장 성 명 (인)

수신 : 노회장

참조 : 교회학교교육사 담당부서장

별첨4>

교회학교 교육사 교육 참가신청서

성명		성별		(3개월 이내) 규격컬러증명사진 (3.5 X 4.5)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년 월 일 생	노회		스캔 사진 컬러 출력 가능
연락처	(연락 가능한 정보로 기재)	교회		
이메일		담임 목회자		
주소				
신력				
유아세례일	년 월 일	교회	집례자	목사
세례(입교)일	년 월 일	교회	집례자	목사
경력사항(소속교회 경력사항만 기재)				
기간	부서	직분		
~				
~				
~				
~				
~ 현재(작성일 기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둘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성명 (인)				
<p>본인은 교회학교 교육사 교육에 참가를 신청하며 총회가 규정한 교육과정과 운영방침을 성실히 준수겠습니다.</p>				
주후 년 월 일				
성명 (인)				

별첨5>

교회학교 교육사 보수교육 유예사유서

성명 :

노회 :

고회 :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교회학교 교육사
보수교육 유예를 신청하오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예사유

년 월 일

성명 (인)

수신 : 노회장

참조 : 교회학교교육사 담당부서장

교회학교중고등부전국연합회 소개

1. 조직소개

회장 : 김영철 장로

지도목사 : 총회 교육훈련처 실장 이명숙 목사

수석부회장 : 이상길 장로

총무 : 박기용 장로

회계 : 강은영 권사

2. 홈페이지 : www.himchurch.net

3. 이메일 : jg4540@hanmail.net

4. YouTube채널 : 중고등부 전국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https://www.youtube.com/channel/UCQDmWuutwLtUebv-ooZIVPA>

5. 연락처 : 02-763-4540 팩스 : 02-744-9529

6. 2026년 사업계획

주요행사	일시	장소
제52회기 중고등전국연합회 총회	2026년 2월 21일 오후1시	광석교회
2026년 청소년주일	2026년 2월 22일(주일)	
중앙위원회 수련회	2026년 4월 10일(금)~11일(토)	
여름수련회	2026년 7월 말 또는 8월 초	
찬양경연대회	2026년 8월 22일(토)	
성경고사대회	2026년 11월 7일(토)	
2027 교사세미나	2027년 1월 9일(토)	

7. 후원계좌 : 농협 301-0324-1835-21 (예금주교회학교 중고등부연합회)